

- 다음은 정 승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 물가에 대한 물가 안정화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 질문 요지 > —

- 고 물가에 대한 물가 안정화 정책  
- 물가안정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
-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세월호 사고로 인해 안산시 경기가 그 어느때 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 우리시가 타시에 비해 소비자물가지수가 높게 나타난 원인은 그동안 경기불황으로 인상을 미루던 개인서비스업종이 2014년에 가격을 인상하여 타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유류가격 또한 인근시에 비해 직영점이 많고 자영업체가 직영업체의 결정 가격을 보고 유가를 결정하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는 서민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이 큰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 운영하고, 유가 안정을 위하여 시민 감시활동 및 베스트 주유소 선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물가모니터의 활동을 통하여 개인서비스요금과 대형마트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가격인상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및 각종 사용료 인상을 억제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 질문하신 『화물자동차 차고지 운영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화물자동차 차고지 운영 개선 대책

- 우리시의 2015년 3월말 현재 대형차량 68,385대중 자가용화물차·버스·건설기계는 62,258대로 91%가 등록되어 있으며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6,127대로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3,727대중 76%인 2,841대가 관외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우리시 도로변 및 주택가 주변지역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와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 화물차들이 관내 차고지로 가야 하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설치는 해당 시·군 및 경기도 인접 시·도까지 설치할 수 있어 차고지는 타지역에 있고 안산에 거주하는 차주들이 유료주차장 등에는 주차하지 않고 거주지 주변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동안 시에서는 주차장 조례 제13조에 의거 공영 주차장 50개소에 대해서는 2.5톤 미만의 화물차는 주차면적 30%범위 내에서, 2.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정한 8개소 공영주차장 주차면적의 50%까지 차고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5월경에 화물전용주차장 87면이 준공되면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또한 대형차량 공영차고지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 10월경에 완료할 예정이며, 용역이 끝나는대로 차고지 증명이 가능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주택가 등에 무단 주차한 대형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금년 2월에 사동 90블럭 미개통 도로에 임시주차장 150면을 조성하고자 노력 하였으나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있어 무산된바 있으나 지속적으로 임시 차고지라도 확보하여 불법주차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주택가에 불법주차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정 승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